

〈강동주택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1. 강동주택인지 먼저 확인하기,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면 반드시 피해라.

: 집값 시세 확인하기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KB부동산 시세 확인



첫째

강동주택인지 꼭 확인하고 피하자!

내가 보고 있는 이 집이 강동주택인지, 확인해야 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2천만 원이라면? 반드시 거르세요!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에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피해야 해요.

2. 임대인의 경제력 믿지 않기

: 집주인이 돈이 많다고 안심시켜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이 집에 빛이 많지만 임대인이 워낙 부자라서 괜찮다고? no!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더라도 믿어선 안돼요. TV에 출연했다거나, 집이 아주 많은 부자라거나, 유명한 직업이라거나... 이런 정보는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강동주택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임대인이 처벌 받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기



3.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체크해야 봐야 합니다.

: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제공하는 HUG, SGI, HF 의 가입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셋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이에요. 아무리 강동주택을 잘 판별했다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강동주택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